

이슬람사회의 통과례

아랍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희수*

1. 전제와 배경

이슬람사회는 넓은 의미로 이슬람 종교가 사회생활과 그 구성원의 의식구조에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전세계 11억 이상의 무슬림 공동체를 지칭한다. 따라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이슬람식 생활의 전통성과 원류가 비교적 뚜렷이 부각되는 중동-아랍사회를 대상으로 그곳의 일반화된 통과례(通過儀禮)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아랍사회란 개념도 북아프리카에서 걸프지역에 걸쳐 지리적으로나 종족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집단을 포괄한다. 통례적으로 문화적 개념으로서 아랍어를 공용어로 해서 스스로 아랍인¹⁾이라고 자칭하면서 이슬람교

*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1) 지정학적인 역사에 근거한 전통적인 아랍인의 의미는 아라비아 반도에 거주하던 유목 셈족을 일컫는다. 아랍인이 최초로 언급된 시기는 아시리아의 왕 Shalmaneser III세의 비문에 "Aribi"나 "Arabu"라는 용어가 보이는 기원전 9세기경이다. 구약성서

를 믿는 문화공동체를 의미한다.

2. 아랍-이슬람사회의 특징

1) 제한된 오아시스 생태계(물-낙타-대추야자)

아랍지역은 크게 사막이 주가 되는 남부의 아라비아 반도, 북부의 산지와 고원, 그리고 중간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지중해와 흑해 연안,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건조기후 지역으로, 유목과 오아시스 농경이 특징적인 생활양식으로 나타난다. 오아시스에서는 수원(水源)을 중심으로 의식주 생활에 결정적인 동반자 기능을 하는 낙타와 양의 사육이 주를 이루며, 대추야자를 주요한 식물성 식량으로 하고 있다.

특히 낙타는 이동과 수송, 의식주의 해결, 전쟁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오아시스 생태권에서 가장 중요한 생존요소이다. 낙타는 400kg 이상의 짐을 적재하고 물이나 식량의 보급없이 400km를 이동하는 놀라운 수송력을 지니고 있다.²⁾ 더욱이 대상로에 대한 정확한 기억과 물을 찾아가는 뛰어난 능력 때문에 아랍 베두인(유목민)들은 낙타를 거의 가족의 일원으로 간주할 정도로 중시한다(Hobbs, 1989: 36). 또한 낙타는 양질의 고기는 물론 풍부한 젖을 공급하여 치즈, 요구르트, 라반(마시는 요구르트), 버터, 유당, 분유, 전지분, 낙유주(酪乳酒) 등을 만들게 함으로써 훌륭한 식량원으로 기능하고 있다. 나아가 가죽과 털(카펫), 뼈(뼈판은 기록이나 그림의 캔버스), 심지어는 오줌(약제나 머리감는 샴푸대용)과 배설물(연료)

“창세기”에 따르면 아랍인은 노아의 장자 셈의 후손이다(Mansfield, 1990: 13-14).

2) 낙타는 128일간 물없이 사막을 횡단했다는 기록이 있고, 가장 무더운 여름에도 5일에 한 번 정도 물을 마신다. 물의 1회 섭취량은 130~150ℓ 정도이다(Hobbs, 1989: 36).

까지도 생활과 생존에 매우 유용한 요소가 된다(Armajani, 1970: 3; Hobbs, 1989: 34-35; 필자의 참여관찰, 1986년 7-9월, 남아라비아-예멘 국경지방의 베두인 오아시스 촌).

이처럼 척박한 유목환경과 외부공격에 노출된 불안한 오아시스 정주생활은 개체와 집단의 공동운명에 근거한 강력한 혈연중심적 부족공동체를 형성시켰다. 집단공격과 공동방어라는 생존원리에 입각하여, 가족단위에서는 철저히 권위적인 가부장적인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는 호전성과 용맹성이 사회성격을 규정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

2) 이슬람과 이슬람 이전 관습의 조화

아랍-이슬람사회는 종교적으로 유대교,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등 주변문화와 이슬람 이전의 아랍-유대적 관습, 그리고 역사성을 지닌 오랜 오리엔트 세계의 전통까지도 이슬람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용해하고 걸러짐으로써 아랍-이슬람 사회관습이라는 총체적인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내었다. 현재에도 상당부분 계승되고 있는 자힐리야(이슬람 이전)시대 아랍사회의 특징을 아랍 사회인류학자인 파타이(Raphael Patai) 교수는 첫째, 족내혼(族內婚, endogamous)사회, 둘째, 부계(patrilial)사회, 셋째, 절대적 가부장적(patriarchal)사회, 넷째, 확대(extended)사회, 다섯째, 일부다처(polygyny)사회로 요약하고 있다(Patai, 1976: 282).

3) 정교일치사회

이슬람교는 아랍인들의 종교, 법률, 사회, 정치사상의 토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 그 자체이며 그들의 의식구조의 핵심이 되고 있다. 즉 이슬람은 일종의 문화적 총체로서 생활 속에 완전히 합일되어 아랍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랍사회에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4) 아랍우월주의의 팽배

이슬람 세계에서 아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넘지 못하지만 아랍 사회에서 이슬람과 아랍주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동일시되고, 아랍인 우월주의의식이 팽배해 있다. 이는 이슬람이 아랍인 예언자 무함마드(마호메트)가 아라비아의 심장부 메카에서 아랍어로 계시하였다는 선험적(先驗的) 자부심에 근거하고 있다.

5) 변화의 거부와 반서구적 아랍민족주의

종교적인 우월감과 중세 이래 화려한 세계역사 무대를 주도했던 이슬람 세계의 번성에도 불구하고, 20세기에 들어 아랍세계에 대한 계속되는 서구의 침탈과 예측으로 반서구적 사회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 오염되지 않은 전통과 역사적 영광을 회상하는 그들의 과거지향적인 성격과 더불어, 그들을 문화적 열등국가로 여기는 서구에 대한 저항의식이 비록 이념적이기는 하지만 아랍민족주의로 결집되어 아랍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Patai, 1976: 268-306).

3. 이슬람의 종교의례

이슬람사회의 통과의례는 거의 전적으로 이슬람교의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그 관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슬람 종교의례의 내용과 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샤하다(Shahadah): 신앙의 고백(La ilaha illallah Muhammadan Rasulallah)으로, 비신자가 신자로 입문하는 과정이며 일원론적 유

일신사상을 강조하는 이슬람 신앙의 첫번째 기둥이다.

- 2) 살라(Salah) : 예배로 소정의 세정의식을 거친 후 매일 다섯 차례 근행한다. 새벽예배(Fajr), 낮예배(Juhr), 오후예배(Asr), 일몰예배(Maghrib), 취침예배(Isha)로 나누어지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체현하는 강력한 끈이다.
- 3) 자카(Zakah) : 회사로 자신의 수입 중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의 2.5%를 사회적 구빈세(求貧稅)로 납부한다.
- 4) 라마단(Ramadhan) : 단식을 의미하며 히즈라(이슬람력) 9월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을 동안 일체의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는 행위이다. 빈부나 계층, 국적,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신자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가난한 자의 배고픔과 약자의 설움과 아픔을 공유케 함으로써 체험을 통한 형제애의 강화와 사회공동선의 실현을 도모한다. 이러한 종교적 의미 외에도 규칙적인 단식은 호트러진 건강을 바로 잡아주고, 체중 감소효과를 가져와 육식위주의 식생활과 무더운 생태계에서 운동부족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이점을 준다.
- 5) 하즈(Hajj) : 성지순례를 의미하며 일생에 한 번 재정상태와 건강이 허락하는 조건에서 성지인 메카를 순례하는 의무이다. 순례는 국적과 문화가 다른 다양한 계층과 인종을 이슬람이라는 공감대 속에 묶어 두는 가장 강력한 무슬림 연대의 표현이며,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 매년 200만명 이상이 몰려들어 교역과 정보교류의 장으로도 기능한다.

4. 통과의례

1) 출생

이슬람사회에서 출산은 “아이들이 없는 집안은 축복받지 못한다”는 무함마드의 언행록(Hadith)에서도 보여지듯이 신의 은총이며, 사회적으로는 가계의 승계, 노동력의 증가, 전사의 확보 등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오아시스 유목사회가 갖는 환경적 특수성과 엄격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가 갖는 남아선호 풍습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슬람사회의 일부다처제도가 첫번째 부인이 남아(男兒)를 낳지 못했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남아가 곧 행복”(rafah wa banin)이라는 아랍 속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종종 여아가 태어났을 때 이를 유기하던 아랍의 여아살해(female infanticide) 관습을 낳았는데(Ibrahim and Hopkins, 1977: 81~82; Saleh, 1977: 124), 이슬람 이후 여아유기관습은 완전히 근절되었다(꾸란, 16: 60).

이슬람의 관점에서 임신순간부터 모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산모의 전과정을 성스러운 투쟁(Jihad)으로 묘사하고 있다. 심지어는 출산중에 목숨을 잃은 산모를 순교자(Shahid)로 간주하여 천국에서 보상을 약속하고 있다(Helms, 1995: 67).

이처럼 출산의 중요성 때문에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혹은 임신행위 이전부터 남아출산을 위한 기원과 각종 비이슬람적 주술행위가 행해진다. 임신을 위한 기원행위로는 쿠웨이트에서 종종 행해지는 것으로 산모의 젖이나 시체를 씻은 물로 목욕하기, 새로 판 우물의 첫물 마시기, 사고사를 당한 남자 시체 위로 건너가기 등이 보고되어 있다(Wells and Batini, 1987: 27). 일단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부는 유산을 막아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각종 미신에 빠져든다. 예를 들면, 임신부가 달을

쳐다 보거나 누워 있는 임신부 위로 누가 지나가면 유산의 징조로 여긴다. 임신기간이 12개월인 낙타의 고기를 금하는데, 이는 출산의 지연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태어날 아이의 성별예상은 산모가 뚱뚱하고 배가 무겁다고 느끼고, 잠을 많이 자면 딸을 낳고, 그 반대면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한다. 또 태아가 산모의 왼쪽 배를 차면 아들을 낳게 된다고 믿는다. 유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7대 이상의 조상 때부터 계승된 대장장이가 주조한 팔찌나 발찌를 해산 때까지 차고 있거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출산 때까지 어린 양을 젖병을 물려 양육한다. 무사히 출산하게 되면 그 양을 희생시켜 고기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나누어 주고 뼈는 집 문지방에 묻는다 (Lughod, 1986: 121; Wells and Batini, 1987: 27).

(1) 출산

출산이 임박해 오면 공동체내에서 평판이 좋고 노련한 조산원(Ai walada)이 고용되어 작은 칼과 명주실 등 필요한 출산준비를 한다. 임신한 부인은 조산원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아기의 옷가지는 물론 악귀(Evil Eye)를 쫓기 위해 호적(護籍)³⁾을 준비하고, 꾸란을 주머니에 넣어 아기가 태어날 방벽에 메카 방향으로 걸어 둔다. 이때 아기용품도 꾸러미를 만들어 그 속에 참깨를 뿌리고 호적과 꾸란 밑에 나란히 건다(R. Lewis, 1971: 93).

출산에는 호도나무로 된 반원형 의자를 사용하는데, 남성은 격리되고 조산원과 이웃 여인들이 꾸란의 주기도문(Fatiha)과 “알라 아크바르”(Allah Akhbar: 알라는 위대하다)를 외치며 출산을 돕는다. 꾸란 구절로는 마리아의 예수 출산과 지진에 관한 부분을 계속해서 낭송한다. 산모는 음식이 금기되며, 박하차 같은 뜨거운 음료를 마신다.

3) 터키어로는 boncuk이라 불리며, 보통 푸른 구슬바탕에 흰자와 검은 눈동자를 그린 것으로 지금도 서아시아 일대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자르고 그 순간 첫번째 이름이 주어진다. 그리고 참깨 세 알을 배꼽 위에 놓고 포대기(흰색을 주로 사용하되 노란색은 금기이다)로 싸고 겹옷을 입히는데(Lane, 1971: 186), 즉시 준비한 푸른색 눈알 호적에 붉은 리본을 달아 아기옷의 어깨 뒷쪽으로 매단다. 이는 앞뒤로 흉안(凶眼)의 해악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식이다. 산모 역시 침대에 누워 침대 위에는 꾸란과 그 밑에 양파, 마늘, 빗자루 그리고 푸른 눈 호적을 매달아 출산 첫날 맹렬한 공격을 가하려는 악귀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R. Lewis, 1971: 93). 쿠웨이트에서는 아이와 산모의 얼굴에 즉시 푸른 물감을 칠하기도 한다(Wells and Batini, 1987: 29).

탯줄은 지역에 따라 처리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일반적으로 특수 방향(芳香)처리를 하여 2-3개월 상자에 담아 두었다가, 아이가 눈병을 앓을 때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종교적인 심성을 갖게 해 달라는 뜻에서 학교나 모스크 근처에 묻기도 한다(Wells and Batini, 1987: 28).

조산원이 출산 소식을 전하면 아버지는 첫번째 의식으로 아기 머리가 메카쪽으로 향하도록 안고 오른쪽 귀에 아잔(Azan: 예배를 알리는 낭송)을 왼쪽 귀에 이까마(아잔과 비슷한 내용으로 모스크내에서 예배 직전에 낭송된다)를 불러주며 신에게 아기의 탄생을 고하고 신의 은총을 구한다. 이 의식은 무함마드의 순나(Sunnah: 무함마드의 언행규범)에 따른 것인데, 그의 딸 파티마가 아들 하산(Hasan)을 출산했을 때 그의 귀에다 아잔을 불렀다고 전해진다(Al-Kaysi, 1986: 127; Lane, 1971: 186).

아잔을 부르고 난 후에는 아기의 강건함을 기원하는 의미로 신선한 대추야자 열매를 씹어 그 액을 아기의 입에 넣어 주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것을 타흐리크(tahrik)라고 한다(Al-Kaysi, 1986: 127). 갓 태어난 아이는 처음 이틀 동안은 꿀이나 설탕물을, 세번째 날에는 식물성 식용유 한 스푼을 먹고 나서 산모의 젖을 빨기 시작한다.

특히 남아를 간절히 고대하던 산모가 남아를 출산하면, 조산원은 그녀가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여아를 출산했다고 거짓 알려주는 지혜를 발

휘한다. 이는 산모가 남아출산을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혼절하는 사태를 막기 위함이다.

산모는 여아를 생산한 경우 즉시 가사로 복귀할 준비를 해야 하지만, 남아를 출산한 경우 최소 3-6일간 침대에서 산후 조리를 하며, 그 뒤 40일간 휴식을 취한다. 그동안 산모는 ‘무가드’(Mugad)라는 죽과 아침식사용으로 고기와 향료를 넣고 끓인 스프인 ‘알 후수’(Al Husu), 당밀과 달걀, 양파를 다져 만든 반죽인 ‘알 아시다’(Al Asida), 점심용으로 미트볼인 ‘알 카부트’(Al Kabut), 차와 우유와 함께 마시는 향료배합인 ‘알 루훴’(Al Luhum) 등을 취한다(Wells and Batini, 1987: 29).

산모는 출산 후 40일이 되는 날, 신부옷을 꺼내 입고 신부와 같은 대접을 받으며 남아출산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한다(R. Lewis, 1971: 94).

(2) 작명의식

출생의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생후 7일째 행해지는 탄생축제(Yaum al-subua)와 작명의식이다. 성대한 잔치가 병행되는 작명의식에 비로소 가까운 이웃이나 친지들이 선물을 준비한 채 처음 아기를 보러 온다. 하렘(Harem: 여성거주 공간)에 여인들이 들어오면 조산원은 아기침대에 묶어 둔 소금주머니를 풀어 뿌리면서 “예언자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의 눈 속에 소금이 들어가기를……” 또는 “사악한 자의 눈 속에 더러운 소금이 함께 하기를……”이라고 중얼거린다(Lane, 1971: 187).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사악한 것, 특히 손님 중에 숨어들어 올지 모르는 악귀의 해악으로부터 아기와 산모를 보호해 달라는 기원의 표시이다. 이때 여인들은 자수 손수건의 한 모퉁이에 금화를 써서 선물로 아기침대 위에 놓는다. 손수건과 금화선물은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미 전에 받은 선물에 대한 답례의 의미가 담긴 사회적 계약이다. 그리고 여인들이 아기에게 덕담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주님이여 우리의 사도 무함마드를 복되게 하소서”이다. 만약 아기 모습을 이례

적으로 칭찬하면 주인은 기겁을 하고 즉시 부정하면서 혹시 질투의 기운이 아기에게 미칠까 봐 의혹의 눈길로 상대를 바라본다.

축제가 시작되면 상류사회에서는 여성가수와 밴드가 동원되어 산모를 위로하며, 아기의 출산을 위해 직접·간접으로 관계된 여인들이 한바탕 함께 즐긴다. 이때 아기도 그 소음을 경험하게 하는데, 특히 여인들은 두 금속을 아기 옆에서 부딪쳐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대범한 기개를 길러 준다.

이런 절차가 끝난 후에는 아기를 체(sieve) 속에 담아 심하게 흔들여 낸다. 이런 행위는 아기의 복통을 방지해 주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민간 습속에서 비롯되었다(Lane, 1971: 187). 탄생축제는 생후 일주일부터 오 주째까지 매주 각각의 독특한 의례가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주일째의 작명 의식이다. 작명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형식을 취하지만, 많은 지방에서는 아직도 아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상당기간 동안 동물이나 곤충의 이름, 혐오스러운 표현, 발음하기 어려운 낱말을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Wells and Batini, 1987: 28).

아랍사회에서 성과 달리 고유한 이름(아랍어: ism)을 따오는 통로는 크게 세 가지이다(Al-Kaysi, 1986: 131-132; Farah, 1987: 167). 첫째는 성서에서 주요한 예언자들이나 이슬람 초기의 무함마드의 동료들 이름을 따는 경우이다. Sulaiman(Solomon), Musa(Mose), Dawud(David), Ibrahim(Abraham), Ismail(Ismael), Ishaq(Isaac), Yusuf(Joseph), Harun(Aaron) Yaqub(Jacob), Isa(Jesus), Muhammad(Mahomet) 등이다. 아마 무함마드라는 이름은⁴⁾ 이슬람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름 중의 하나일 것이다.

둘째는 알라의 속성을 이름으로 따는 경우이다. 알라는 꾸란에서 99

4) 그러나 터키 및 중앙아시아 일부 이슬람사회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는 대신에 그의 별칭인 Mehmet, Mahmud, Mustafa 등을 작명에 사용한다.

가지의 이름으로 지칭되는데, 그 앞에 'Abdul' 즉 '복종'이란 접두어를 붙여 신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혜'(Abdul Alim), '전능'(Abdul Qadir), '자비'(Abdul Rahman), '알라의 종'(Abdul + Allah = Abdullah) 등이다.

셋째는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나 출신지역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이슴(ism) 보다는 후에 언급될 '니스바'(nisbah) 즉, 성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다.

여자의 경우에는 마리아의 아랍어 표기인 마리암(Mariyam)이나 무함마드의 어머니나 딸, 아내들과 관련된 이름이 많다. 또한 알라의 99가지 속성을 여성화하여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자는 결혼 후에도 친정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가계내력을 분명히 한다(Hobbs, 1989: 6).

한편,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쉬아파에서는 예언자들의 이름과 함께 그들이 추종하는 4대 칼리프 알리(Ali)와 그의 후계자들, 특히 그들의 종교적 신앙과 관련하여 12이맘의 이름을 선호한다. 따라서 알리와 그의 아들 하산(Hasan), 후세인(Husein), 그리고 12이맘인 자파르(Jafar), 리다(Rida) 등이 이란에서 매우 보편화된 이름이다.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순니 아랍세계에서 매우 보편화된 4대 칼리프 중 아부바크르(Abubakr), 우마르(Umar), 오스만(Osman) 등의 이름이 그들을 칼리프직의 찬탈자로 보는 쉬아파 세계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랍사회에서 이름을 짓는 방법은 위의 예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슴(ism) 이외에도 나삽(nasab)과 쿤야(kunya)의 방법이 있다. 나삽은 아버지의 이름 앞에 'Ibn' 또는 'Bin'(-의 아들)이나 'bint'(-의 딸)를 붙여 부르는 이름을 말한다. 예를 들면, Qaboos Bin Said(Said의 아들 Qaboos)나 Jamila Bint Said(Said의 딸 Jamila)의 경우에 Qaboos나 Jamila는 이슴에 해당되고 Bin Said, Bint Sais는 나삽에 해당된다. 가계를 표시하기 위해 'Ibn'을 몇 개씩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를 제외한 일부지역에서는 Bin이나 Bint를 생략하고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나란히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페르시아어 지역에서는 Ibn 대신에 ‘-e’를 사용한다(김정위, 1994: 242). 역사적으로는 Ibn Sina(980-1037: 무슬림 철학자), Ibn Rushd(1128-1198: 무슬림 철학자), Ibn Khaldun(1332-1406: 무슬림 사상가)처럼 이슴보다는 나삼으로 더 잘 알려진 인물들이 많다.

쿤야란 이름 앞에 ‘Abu’(-의 아버지)나 ‘Um’(-의 어머니)을 붙여 자식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호칭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Abu Hanifa(하니파의 아버지, 8세기 이슬람 법학자), Um Kathum(카숨의 어머니, 이집트의 유명한 대중가수)을 예로 들 수 있다. 쿤야는 주로 첫아들의 이름을 따으로써 가계계승자로서, 또는 용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첫아들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쿤야는 후일에 붙여지기도 하는데, 아들이 특출하여 ‘-의 아버지’로 자신의 이름이 고착화된 경우이다. Ibn Abi Muhammad(무함마드 아버지의 아들)처럼 이슴과 쿤야가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김정위, 1994: 243).

유목적인 아랍사회에서 부계로 이어지는 성은 발달하지 않았다. 다만 이름의 맨 뒤에 정관사 ‘-al’을 붙이고 부족 또는 씨족의 이름이나, 출신지역, 직업, 소속종파 등을 사용하여 성의 기능을 하면서 가족관계나 가문의 내력은 물론, 집단의 소속감과 결속력을 확인하였다. 이를 ‘니스바’(nisbah)라 하였다. 예를 들어 al-Quraishi(쿠레이쉬 부족 출신), al-Dimashqi(다마스쿠스 출신), al-Baqillani(콩장사), al-Hanafi(하나피학파 소속) 등이 있다.

이외에도 성명구성의 기본요소는 아니나 흔히 사용되는 것으로 ‘별칭’이나 ‘별명’처럼 사용되는 ‘라캅’(laqab)이 있다. 라캅은 주로 신체적 특징이나 직업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같은 이름의 왕이나 술탄을 구별하기 위해 시호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3) 희생(犧牲, Aqiqa)

생후 7일째 작명하는 날, 아기의 머리털을 정수리만 남기고 자르고 그

머리털의 무게에 해당하는 금이나 은을 가난한 사람에게 회사한다. 이러한 의식은 후일 새로운 개종자들에게도 실시됨을 볼 수 있는데, 작명과 함께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로 입문함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주인은 손님들을 초대하여 동물들을 희생한다. 보통 남아인 경우에는 양 2마리를 여아인 경우에는 양 1마리를 잡는다(Al-Kaysi, 1986: 128-129; Walther, 1981: 41). ‘아끼까’ 의식은 생후 7일째 뿐만 아니라, 지방에 따라서는 14일째와 21일째에도 행하고 있다(Wells and Batini, 1987: 30). 이 의식은 부모가 그의 자식들을 위해 희생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그 자식이 곧 죽게 되거나 최후의 심판일에 자식이 부모를 변호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아끼까의 기도문을 외운다.

“오 주여! 분명히 이 아끼까는 내 자식을 위한 몸값이니; 그의 피를 위해 이 피를; 그의 살을 위해 이 살을; 그의 뼈를 위해 이 뼈를 희생하나이다. 주여 이 희생이 지옥의 불길로부터 내 아들을 구하는 몸값(贖錢)이 되게 하소서.”(Lane, 1971: 191)

희생제물은 일반적으로 3등분하여, 한 몫은 집안에서 요리하여 손님들을 대접하고, 한 몫은 가까운 친지나 친구, 조산원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한 몫은 가난한 이웃에게 회사한다(Al-Kaysi, 1986: 129). 이러한 3분 회사방식은 여러 다른 희생의식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여기서 언급하고 지나갈 것은 이슬람 율법학자들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남아에게 여아의 두 배 가치를 두는 강한 사회적 의식이다. 이는 법정 증언효력에서도 명백한데, 여자 증인 두 명은 남자 증인 한 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Walther, 1981: 33).

2) 할레(생후 8일째)

꾸란에 할레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⁵⁾ 하나피 학파⁶⁾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슬람사회에서 행해지는 보편적 의례이다. 중동의 할례 습속은 고대 이집트인이나 유대인,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관습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 유대인들은 처음에 신을 위해 인간 제물을 희생시켰으나, 차츰 인적 희생을 없애고 인간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생식기 일부를 잘라 피를 흘리는 의식을 통해 희생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 후 할례는 유대인 사이에 비유대인과 구별하는 종족적 일체감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확인하는 의례로 중요시되었다. 이슬람 이전 아랍인들 사이에 할례가 부분적으로 행해졌지만, 그 후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종교의례로 승화시켜 심신의 절대 청결이란 이슬람의 가르침에 입각하여, 신체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청결케 한다는 의미로 할례가 보편화되었다.

이슬람사회에서 할례의 시기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아랍사회에서는 작명의례를 행한 직후인 생후 8일째 할례를 행한다. 그러나 아랍권 일부에서와 비아랍권에서는 생후 40일째 또는 아이가 좀더 성장한 후인 5-7세 때 할례를 행한다. 상류층 자체가 할례를 할 때는 가진 자의 비용으로 수십 명의 고아와 가난한 자의 자식들이 함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미덕으로 되어 있다. 성대한 잔치와 할례복의 준비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할례일이 공고되면 대상자들은 터번과 새 옷으로 단장하고 악사들과 함께 동네 주위를 말이나 낙타를 타고 배회하면서 자신들이 곧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입문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린다. 할례에는 많은 친지들이 지켜보고 축송을 하는 가운데 마취없이 간단한 수술을 행한다. 어린 나이에도 결코 울지 않는 강건함을 보여 줌으로써 남성의 세계에 입문할

-
- 5) 할례의 계율은 토라의 “창세기”(17:12, 17:22)와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에 근거한다.
 - 6) Maliki, Shafi'i, Hanbali 학파와 함께 순니 이슬람의 4대 학파 중의 하나로 비교적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슬람법의 적용을 표방한다. 현재 터키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일대에 그 세력권이 형성되어 있다.
 - 7) 유대인들의 할례관습은 지속되고 있으나, 기독교인들의 할례는 바울시대 이후 없어졌다. 예수 자신은 할례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격을 인정받는다. 갖가지 선물과 함께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최고의 관심과 축하를 표명한다(R. Lewis, 1971: 98-99; Ginat, 1983: 197-203).

여아의 할례는 샤피학파(Shafi'i)에서는 의무로 규정되고 있는 데 반해, 말리키 학파에서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나머지 학파에서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 여아 할례의 방법과 정도는 학파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수단과 이집트에서는 아직도 여아 할례가 매우 보편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데 반해, 메카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아프리카, 터키, 이란, 파키스탄 등지에서는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다. 할례의 방식도 수단에서는 소음순과 클리토리스의 돌출 부분을 포함한 광범위한 부위를 제거하는데 반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클리토리스의 일부(1-3mm)를 예리한 칼로 제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대의 많은 이슬람 학자들이 여아 할례를 이슬람 이전시대의 비종교적 의미로 배척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부의 아랍인들은 관습적으로 이를 행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여성 할례가 여성의 성적 기능과 충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Walther, 1981: 42; Hathout, 1994: 16-17; WAMY, 1995: 42).

3) 성장

아이는 의례적인 무수한 통과의례를 거치면서 성장해 간다. 첫 이가 났을 때, 첫 걸음걸이, 첫돌의식 등이 그것이다. 산모는 꾸란의 규정에 따라 만 2년 이상 모유로 양육할 책무를 진다. 건강의 이유로 수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우유나 분유 대신 유모를 고용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모유의 신성함 때문에 같은 유모의 젖을 빨았던 유아들은 후일 아무런 인척관계가 없음에도 결혼이 엄격히 금지된다(R. Lewis, 1971: 94-95). 유아기의 성장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특히 강조된다. 이슬람은 그의 자식을 샴하다를 암송할 수 있는

나이까지 잘 키워 부모에게 복종하고 신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든 어머니에게 천국을 보장하고 있다(Helms, 1995: 67).

자식이 갖는 소중함과 의미가 크면 클수록 부모는 질병을 유도하는 사악한 기운이나 흉안(凶眼)의 해악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미신에 가까운 여러 가지 방책을 강구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아이의 몸골을 지저분하게 하거나 현란한 장식을 달아 흉안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터키 동부나 쿠웨이트, 시리아 일부지역에서는 남아를 여장(女裝)시켜 악귀의 눈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가난하고 지저분한 아이보다 부유층 자제가, 여아보다 남아가 더욱 흉안의 시기를 받기 쉽다고 믿기 때문에 왕족이나 상류층 자제는 거의 취학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하렘에 칩거하면서 외부인과 접촉이 제한된다(Wells and Batini, 1987: 28; R. Lewis, 1971: 95-99).

할레 이후부터 아버지로부터 절대적 복종과 존경심의 바탕에서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게 된다. 이에 예절, 사회의 관습과 관례, 종교적 지식을 전수받는다. 셰이크라는 가정교사를 고용하기도 한다. 말하기 시작할 때 처음 받는 교육은 신앙의 고백, 즉 '샤하다'(Shahada)를 외우며 무슬림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5세부터 세정과 예배의식을 행하고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선조의 영웅담이나 신화적 전설을 전해 듣는다. 7세가 되면 남녀가 유별하여 하렘에 함부로 왕래할 수 없으며, 여자는 바깥 출입을 할 때 베일을 쓴다. 이때부터 서당이나 학교에서 꾸란과 하디스를 배우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R. Lewis, 1971: 95-96).

이에 비해 여아는 거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일부 상류층에서는 여교사를 초빙하여 가정에서 글자를 익히고 꾸란 낭송 및 종교적 교육을 받게 하지만,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엄격한 통제 속에 수예, 방직, 카펫짜기 등의 기술교육을 익히게 한다(Lane, 1971: 204-205; Farah, 1987: 167-168).

4) 혼례(Nikah)

아랍-이슬람사회가 갖는 혼례의 특징은 신분과 직업에 맞는 중매혼, 일부다처의 허용, 결혼지참금(mahr) 제도, 사촌간 결혼, 남성위주의 결혼생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결혼은 부족간의 정치·경제적 절충, 도덕률의 유지를 통한 사회결속과 가족연대를 강화하는 기능, 그리고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본능을 제도화하는 의미를 갖는다(Barakat, 1993: 107).

이런 측면에서 이슬람에서는 초기 유대교 옛세네파(Hebrew Essenes)나 초기 기독교의 금욕주의를 배경하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이슬람 신학자들은 이슬람의 결혼을 종교적인 의무로 분류하는데(Ati, 1977: 52), 꾸란의 많은 구절(꾸란, 30:21, 4:1, 24:32)과 무함마드의 전승에 “신체에 이상이 없는 독신자는 악마의 형제”, 또는 “결혼은 신앙의 절반”이라는 표현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Lane, 1971: 221). 아랍사회에서 결혼은 개인 선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이나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유없는 독신은 용납되지 않는다. 이집트의 베두인인 쿠쉬만족의 속담에는 “아내와 자식이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한 것”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다(Hobbs, 1989: 11).

특히 쉬아파 일부에서는 이슬람 초기까지 무타(mut'a)라는 일종의 임시결혼을 허용하였다. 이는 아내를 동반할 수 없는 장기여행중인 남자에게 성적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 허용된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결혼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도 그 자식은 완전한 적자로서 딸 자식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Walther, 1981: 36).

(1) 배우자의 선택과 범위

이슬람 전통사회에서 자유연애 결혼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결혼은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이나 혈연공동체 모두에게 관련되는 공통

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남자 18-20세, 여자 16-18세의 적령기에⁸⁾ 도달하면 흔히 그 마을에서 가장 명망이 높고 평판이 좋은 사람이 중매쟁이(khataba)가 되어 양가의 사회적 신분, 재산, 직업, 결혼 당사자의 교육 정도나 됫됨이를 고려해서 신랑신부의 혼담이 진행된다. 연애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아랍 전통사회에서 카타바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시된다.

무라(AI-Murrah)족의 경우에서처럼 일반적으로 비슷한 신분의 집단간에 결혼이 보편적이고, 이미 혼인관계가 있는 집안에서 신부감을 고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렇지 않는 경우 혼담은 때때로 1-2년씩이나 계속되기도 한다(Cole, 1977: 97-99). 혼담이 오가던 결혼의 거절은 흔히 꿈이나 불길한 징조를 내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 Lewis, 1971: 100).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그 가계의 혈통이 예언자 무함마드와 관련이 있는지, 종교적 헌신도나 신앙의 정도, 노예상태에서 해방된 후 몇 세대가 지났는지, 재산, 가정의 도덕적 규율상태 등을 살핀다. 쉬아파와는 달리 순니파에서는 남자는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속한 가문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비천한 가문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Cole, 1977: 98; Afi, 1977: 34; Walther, 1981: 34).

또, 일부지역에서는 유아기에 이미 양가 사이에 약혼을 하는 관례가 강하게 남아 있다. 또, 아무런 인척관계가 없더라도 어릴 때 같은 유모의 젖을 공유한 남녀의 결혼은 관습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점이 서아시아사회에서 젖의 신성함과 관련하여 매우 특이하다(R. Lewis, 1971: 94).

신랑감은 아버지가, 신부감은 어머니가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배우자의 최종 결정권은 아버지가 갖는다. 신부에게 아버지가 없는 경우

8) 결혼 적령은 지역이나 부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집트 쿠쉬만족의 경우 남자 20-25세, 여자 17-20세이다. 아랍 동부지방에서 여성의 결혼 적령은 1930년대까지의 14-18세에서 1960년대에는 17-21세로 연장되었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21-30세 사이로 연령폭이 늘어났다. 특히 레바논의 지중해 연안도시인 트리폴리나 시돈 시의 종교법정 기록을 종합해 보면, 남자의 결혼 적령은 28-32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Barakat, 1993: 111).

에는 남자형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나, 신부는 남자형제가 고른 신랑감을 거부할 수 있다(Wells and Batini, 1987: 21). 그러나 침묵은 종종 동의로 받아들여진다. 여자는 부모가 선택해 준 신랑후보를 거절할 수 있으나,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는 하나피학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혼을 앞두고 본인이 선호하는 배우자와 부모가 원하는 대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전통아랍 여성들의 모습은 아랍소설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된 테마이다(Barakat, 1993: 108). 일부지역에서는 여자의 남편 후보 거부권을 1회에 한해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Walther, 1981: 33). 결혼 후보자는 부모나 후견인(wali)과 함께 신랑신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혼례일까지 상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시기로는 가장 좋은 달이 샤왈(Shawwal: 히즈라 10월)이고 가장 회피하는 달은 무하람(Muharram: 히즈라 1월)이다. 시간은 금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저녁을 주로 택한다(Lane, 1971: 230; R. Lewis, 1971: 101).

결혼이 금지되는 근친의 범위는 이슬람법(꾸란)에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 딸, 여자형제, 배다른 누이, 숙모, 고모, 이모, 외숙모, 조카, 질녀, 장모, 의붓딸, 아버지의 다른 부인들, 며느리 등이며, 두 자매와 동시결혼, 같은 유모의 젖을 공유했던 사람, 노예와 결혼도 금지된다(꾸란, 4:23). 또한 남녀 모두 부부생활을 위협하는 지병이나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하고, 남자는 4명의 아내를 갖지 않은 상태, 여자는 이혼한 후 전 남편과 관계가 청산되고 재혼금지 기간(idda)을 충족한 상태여야 한다. 부족에 따라서는 처가 사망한 경우 처제나 처형과의 결혼이 보편적이고, 형제가 사망하는 경우 형수나 계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수계혼(媿繼婚) 제도가 성행하기도 한다. 종교적인 제한으로는 무슬림 남자는 이교도 여인 중 기독교인과 유대교도와 결혼이 허용되지만, 무슬림 여자의 이교도 남자와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결혼은 허용되어도 이교도 아내는 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유산상속권을 갖지 못한다(Walther, 1981: 34; R. Lewis, 1971: 101; Afi, 1977: 34; 김정위, 1994: 225).

(2) 혼인의 성립

결혼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신랑신부의 보호자와 각각 두 사람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판관(qadi)이 결혼의 합법성을 공표한다. 전통 관습법은 서면양식 없이 판관이 쌍방의 합의를 공동체에 공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으나, 지금은 여성 보호차원에서 모든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혼인계약서가 작성되어 공개된다. 성혼(成婚)의 절차는 주례인 판관이 결혼계약의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한 다음에, 결혼의 의미와 이슬람의 가르침에 대한 설법이 있는 후, 신랑신부가 오른손 엄지를 세워 서로 누르며 손수건으로 그 위를 덮는다. 그리고 신랑신부가 꾸란의 주기도문(Fatiha)을 함께 외우는 것으로 끝난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와 함께 관습적인 절차의 충족도 결혼의 성립에 매우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부의 처녀성 문제이다. 이는 흔히 첫 날밤을 지낸 후, 하얀 천에 묻은 혈흔을 대중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처녀성이 증명되고 그 결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나타난다(Cole, 1977: 100).

(3) 사촌결혼

아랍사회의 권장된 결혼관습 중의 하나는 사촌결혼(cousin marriage)의 성행이다. 사촌 중에서도 부계사촌(父系四寸), 즉 숙부의 딸(bint 'amm)을 신부로 맞이한다. 부계사촌 누이동생에 대한 그의 권리와 의무는 거의 절대적이어서 그가 그녀와 결혼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그녀와 결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신부로 맞아들일 숙부의 딸이 없을 경우에는 모계사촌누이, 즉 외숙부의 딸(binti khall)과 결혼하기도 한다(Hobbs, 1989: 9). 반면 신랑이 가족들의 압력으로 부계사촌 누이와 내키지 않는 결혼을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의사로 두번째 부인을 얻음으로써 그 보상을 얻기도 한다(Wells and Batini, 1987: 21). 사촌결혼 풍습은 크게 가족연대의 강화, 상속에 따른 재산권 보호, 결혼 후의 원만한 가족관계

의 기대, 과도한 결혼지참금의 지불이라는 경제적 압박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남녀가 철저히 분리되고 교제가 통제된 사회구조에서 사촌누이는 내외하지 않고 자유로이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근친 여성이라는 현실적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Cole, 1977: 97-98; Barakat, 1993: 109; Ginat, 1983: 114-115).

(4) 결혼지참금(Mahr)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로 신부측에 일정한 재화를 지불하는 마흐르제도는 이슬람 이전 아랍사회에서도 존속하던 유습이다. 처음에 마흐르는 부족이나 가문간의 연대표시, 빼앗긴 노동력에 대한 보상, 가부장제 확립을 위한 처가쪽 영향력의 봉쇄, 여성의 복지보호를 위한 기능이 강했으나(Ati, 1977: 62-63), 이슬람 이후 이 제도는 종교적인 강제규범으로 승화되어 순수하게 이혼이나 재해시에 여성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금의 의미로 정착되었다(꾸란, 4:4, 4:19). 따라서 마흐르는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친정에서 관리하고, 필요시에 여성에게 전달된다. 친정에서 이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이슬람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Ibrahim and Hopkins, 1977: 81).

마흐르의 액수는 신부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신부의 교육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모의 도움없이 독신남성이 준비하기에는 매우 벅찬 금액이다. 따라서 나이 든 노총각과 이혼녀의 결혼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편견없이 받아들여진다. 또한 초혼과 재혼에 따라 그 비율도 달라 처녀일 경우를 100으로 할 때, 이혼녀는 75, 미망인은 50에 해당하는 마흐르를 받을 수 있다.

마흐르는 결혼성립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충분조건이며,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 액수가 조정되거나 3분의 2를 결혼시에 지불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혼시에 지불하기도 한다. 또, 사촌혼의 경우에서 마흐르는 상징적인 액수에 그치기도 한다(Walther, 1981: 33).

5) 일부다처제

일부다처제는 고대 이래 오리엔트-서아시아에서 만연된 결혼관습이었다. 구약의 선지자(先知者)들의 다처주의는 잘 알려져 있으며,⁹⁾ 탈무드의 유대 현자(賢者)들도 무절제한 다처관습에 대해 4명의 아내를 기준으로 4명 이상의 아내를 갖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무절제한 다처주의와 아내의 상품화현상이 아랍사회에도 그대로 만연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이슬람에서 결혼제도의 기본은 엄밀한 의미에서 일부일처이다. 초기 이슬람사회는 적대적인 메카인과 오랜 전쟁으로 남성의 절대적인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었다. 따라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인도주의와 공동선 차원에서 전쟁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꾸란 구절이 제시되었다. 특수한 조건과 상황에서 일부다처까지 허용하고 있는 유명한 꾸란 4장 3절은 다음과 같다.

“전쟁고아들을 공정히 대해 줄 수 없을 때는 아내를 구하라. 둘, 셋, 넷까지. 그러나 아내들을 공정하게 대해 줄 자신이 없거든 한 아내로써 족하라.”

또한 꾸란 4장 129절에는 “너희가 노력한다 해도 너희 아내들을 공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이슬람 율법 학자들은 전쟁과 천재지변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공동선과 공존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다처가 허용되지만, 이슬람의 현대적 적용에서 다처의 고집은 비이슬람적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일부다처의 경우에도 여

9) 예로서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소유했고, 그의 아들 레호보암(Rehoboam)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었다.

성들의 지위는 이슬람 이전 상태를 고려하면, 여성인격의 혁명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네 명이란 숫자를 어기지는 않았지만 12명의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러나 그는 25세에 40세의 과부 하디자와 결혼하여, 50세에 상처할 때까지 25년간을 일부일처를 고집하였고, 이후에도 전쟁 미망인이나, 이슬람 공동체의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결혼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슬람 제1세기의 과도적 혼란기에는 새로운 결혼관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4명의 법적인 숫자를 준수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었다. 무함마드의 조카이며 사위였던, 그리고 후일 4대 칼리프(khalifa)로 등극한 알리(Ali)는 네 명의 아내와 17명의 노예첩을 거느렸을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을 적절히 조절하여 율법을 어기지 않고 결혼한 여자의 총수가 200명이 넘었다. 이슬람 역사에 알려진 최대의 다처기록 보유자는 이븐 알-타입(Ibn al-Taiyib)으로, 그는 15세에 처음 결혼하여 85세로 사망할 때까지 900명의 아내를 거느렸으니, 매년 평균 13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계산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슬람사회는 다처를 세속법으로 금하고 있고, 일부 아랍 왕정국가에서조차 일부다처의 비율은 전체국민의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나마 다처의 거의 대부분은 일부이처의 경우이다. 일부일처 경향은 교육정도, 도시화, 서구화, 젊은 세대에 따라 더욱 강해지는 추세에 있다. 다처의 경우에도 모든 아내는 모두 정실부인으로 법적·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아내들의 상속지분도 균일하다. 이는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적자와 서자가 완전한 동등권을 부여받는다.

(1) 일부다처의 일반적 전제

아내가 남아를 낳지 못할 때 (도덕적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이유로)
 사회적 특권과시(경제적 능력, 육체적 능력, 지참금 지불 및 부양능력)
 형수나 제수를 맞이하는 경우(媾婚制: Levirate)
 반강제적 인습결혼(조혼이나 사촌결혼 등) 후 애정으로 결혼하는 경우

첫번째 부인이 질병, 불임의 결점이 있을 때

(2) 일부다처의 제한.

첫째 아내의 반대(친정집 동원: 희유, 설득, 위협, 폭력방법 동원)
경제적 능력의 한계(시골남성인 경우)

장성(長成)한 자식들의 반발(가장 강력한 반대)

- 1) 새어머니의 태도에 불안
- 2) 새 동생의 탄생으로 재산상속권의 분산·약화
- 3) 자신의 결혼비용이 새어머니의 지참금으로 사용되는 불만
기혼자에 대한 결혼기피풍조

6) 이혼

이슬람법의 여권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랍 관습법에는 여성에게 불리한 이혼제도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혼율은 다처의 허용과 여성의 사회 진출 제한 때문에 아주 드물다. 이슬람사회에서 이혼의 종류는 크게 합의 이혼과 일방이혼으로 나뉜다. 합의이혼은 다시 여자가 제기하여 지참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남편이 동의한 ‘쿨라’(Khula)라 부르는 이혼과, 상호비용이 무시된 채 쌍방이 합의한 ‘무바라’(mubara'a) 이혼이 있다.

일방이혼은 ‘탈라끄’(talaq)라 하는데, 남편의 이혼제기와 아내의 이혼 제기로 분류된다. 전자는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당신과 이혼한다”는 공식적 선언을 3회 되풀이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이다. 즉, 3개월의 냉각기를 두고 심사숙고한 후에 3회에 걸쳐 분명한 이혼의사를 표명하면 된다(WAMY, 1995: 41; Cole, 1977: 101; R. Lewis, 1971: 104). 이때 여자는 미지불된 마흐르를 받고, 100일에 걸친 ‘잇다’(iddah),¹⁰⁾ 즉 이혼금

10) 대부분의 이슬람사회에서 재혼 금지기간인 ‘잇다’를 설정하고 있지만, 그 기간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쿠웨이트의 경우 ‘잇다’를 4개월 10일, 즉 130일로 본다.

지기간을 거친 후 이혼에 이르게 된다. '있다'기간중에 여자는 전남편집에 기거할 의무를 갖고, 남자는 그 기간동안 전 아내를 부양할 책무를 가진다. 이때 성적 접촉은 금지되며 여자는 화장과 장식을 금한 소박한 차림으로 근신하는 생활을 한다. 여기서 '있다'가 주는 기능은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 기간동안 많은 이혼 부부가 별거를 통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고 성적 욕구를 못 이겨 재결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여자의 일방적인 이혼요구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첫째, 남편의 경제적 무능, 둘째, 남편의 불구와 불치병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불가, 셋째, 1년 이상 장기출타나 실종, 장기복역의 경우, 넷째, 감내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때다.

남편이 한 아내와 이혼한 후 다시 재혼, 삼혼할 수 있으나, 세번째 이혼 후 그 여자와 다시 결혼할 수는 없다. 그런 경우 그 아내가 딴 남자와 결혼한 후 이혼한 상태에서만 세번째 결혼이 성립될 수 있다(Ibrahim and Hopkins, 1977: 82).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 남편과 세번째 재결합을 원하는 여성은 가난한 늙은 남자와 하룻밤 계약결혼이 관행적으로 묵인된다(R. Lewis, 1971: 104).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미망인은 4개월 10일간의 애도기간을 거친 후에 재혼할 수 있고, 임신중일 때는 출산 후에 재혼이 가능하다. 출산 후에도 아이가 젖을 떼는 최소 2년 동안 전 남편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이혼한 아내를 부양하도록 꾸란이 규정하고 있다(꾸란, 2: 230; Aii, 1977: 34-37).

이혼한 부부의 자식 양육문제와 관련하여 서구법은 좀더 능력있는 부모 한쪽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슬람법에서는 아들이 7-9세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양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 만약 어머니가 이혼한 후 재혼하는 경우 이슬람 법정은 아이들의 할머니나 숙모 등 교육과 양육의 양면을 고려하여 가장 적당한 인척에게 후견권을 부여한다(WAMY, 1995: 17).

7) 장례

이슬람교에서 죽음은 이승과 저승과 매듭이고 새롭고 영원한 삶에 이르는 교량이다. 내세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부활하여 영적으로 훨씬 고양된 삶의 양태가 형성된다. 따라서 죽은 자를 화장하는 경우 영혼의 인식처가 소멸된다고 보아 매장하여 무덤이라는 영혼의 거주공간을 만들어 주도록 가르친다. 또한 고인을 추모할 때 두 영혼의 교감으로 영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이유에서 이슬람사회의 장례 특징은 빠른 매장(보통 24시간 이내), 간단하고 엄숙한 상례(喪禮), 내세에 대한 강한 믿음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이희수, 1990: 128-129). 그러나 아랍의 일부지역에서 이슬람 이전의 전통적인 상례관습이 이슬람 이후의 상례규정과 병행해서 나타난다.

자신의 죽음을 인정한 자는 세정의식을 행하고 얼굴을 메카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샤하다'(신앙고백)를 낭송한다. 그런 기력이 없는 상태에선 가족이나 친지들이 샤하다를 낭송하여 들을 수 있게 한다. 꾸란 구절로는 '야신'(Yasin)이 조용히 낭송된다. 이때 생리중인 여자, 출산 후 4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인, 기타 정결치 못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한다(Islamic World League: 10).

운명하면 사자(死者)의 얼굴이나 머리를 메카로 향하게 한다. 즉시 부고를 하되, 큰 소리로 울거나 비탄에 젖어 울부짖거나 뺨을 때리고, 옷을 찢는 등의 행위는 이슬람 이전의 관습으로 금기시된다. 다만 조용히 흐느끼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제제도 가하지 않는다(Islamic World League: 11-12).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가족 중 여자(부인)가 큰 소리로 곡을 시작함으로써 죽음을 알린다. 이슬람 이전의 관습으로 매장될 때까지 통곡과 꾸란 낭송이 그치지 않는데 통상적으로 '네다비'(Nedabih)라는 여자 대곡자(代哭者)를 고용하여 '왈왈라'(Walwalah), '윌왈'(Wilwal)이라 외치며 계속해서 통곡한다. 꾸란 낭송을 위해 '하피즈'(Hafiz)라는 독경사가 초대

되기도 한다.

사체의 수습을 위해 우선 눈을 감기고 입을 다물게 한다. 그리고 발목을 묶고 두 손은 가슴 위에 놓는다. 가족이나 '무가실'(Mughassil: 장의사)이 사체를 향료를 넣은 비눗물로 세정한 후 염(殮)을 한다. 이때 남편이 아내의, 아내가 남편의 시신을 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무명천이나 자루를 이용해 사체를 싸고 흰색이나 녹색의 수의(kefen)를 입힌다. 특히 사살당한 자나 전사한 시체의 경우에는 세정의식을 생략한다.

장례절차는 아침에 시신이 관에 실려 집을 나설 때 모든 친지와 이웃이 상여군이 되어 모스크까지, 또한 그곳에서 묘지까지 운반된다. 상여군을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는 대도시에서도 거의 찾을 수 없다. 강력한 사회연대의식의 표현이다. 터키의 경우, 상여가 집 앞에서 출발하기 전 이맘(이슬람 사원의 예배인도자)은 회중(會衆)들에게 큰 소리로 생전의 고인에 대한 이웃의 평판을 질문한다. 이때 모여든 이웃들은 한목소리로 고인을 위해 좋은 증언과 변호를 해준다. 사회적 평판이 내세에서 심판일날 주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는 믿음 때문에 공동체내의 적극적인 삶과 협력이 강조되는 의식이다(필자의 참여관찰, 1983-1989 이스탄불 파티지구).

가까운 모스크에서 홀수열을 만들어 장례예배를 마친 다음 영구행렬은 장지로 향하는데 선도에는 맹인이나 걸인들이 둘, 셋씩 짝지어 앞장서고, 남자친지 그룹이 뒤를 따르는데 이때 한 소년이 꾸란 제30장을 편 채 행진한다(Lane, 1971: 260). 상여가 따르고 상주그룹, 그 뒤를 이어 여자 그룹, 그리고 고용된 대곡자들이 통곡하며 따른다. 부유한 집인 경우에는 음식을 실은 낙타떼가 동원되는데, 일부는 무덤에 넣고 나머지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다. 장지에 도착한 후 관없이 시신을 매장하는데, 모로 넓혀 얼굴이 메카로 향하게 하되 얼굴이 오른쪽, 다리가 왼쪽으로 가게 한다. 매장시각은 한밤중이나 일출, 일몰시각, 그리고 태양이 정중양에 있을 때는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Al-Kaysi, 1986: 176).

묘소는 흙을 다져 봉분없이 지표면보다 약간 높게 평분을 만들고 표석을 한다. 비문을 세우기도 하는데, 여자의 경우 남편의 이름대신 친정아

버지의 이름을 표시한다.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하는 풍습은 근본적으로 내세에서 영혼과 함께 육신도 부활한다는 믿음에서 연유하나,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 “신이 벌하는 방법으로 벌하지 말라. 불로써 벌하는 것은 신 이외에 누구에게도 걸맞지 않다”는 구절을 내세우기도 한다(김정위, 1994: 239).

특히 묘실은 3-4명이 매장될 수 있도록 넓게 파는데, 한 세대가 지나면 한 무덤에 또 다른 가족을 매장하는 복장(復葬) 관습 때문이라 사료된다. 묘소에다 집을 짓고 비석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는데, 후일 아랍 이외의 지방에서 왕묘나 성자들의 묘소에 대규모 묘당을 짓는 유행이 생겨났다.

장례 후 첫 3일간 밤새 내내 꾸란을 낭송하는 관습이 일반적이고, 지역에 따라 3일째, 15일째, 40일째, 1년째 가족들이 고인의 추모집회나 기도 의식을 거행하기도 한다. 일부 아랍 유목민들은 15일째와 40일째 무덤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여 꾸란을 외우며 고인을 추모하기도 한다(Hobbs, 1989: 65-66). 40일간 유족들은 화려한 차림을 피하면서 주로 금요일에 가족과 친지가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꾸란을 독경하는 주기적인 추모 의식을 행한다. 미망인의 경우는 집에서 4개월 10일간 외간남자와 접촉을 피하며 지낸다. 이는 재혼금지 기간인 ‘잇다’를 지켜 자유로운 재혼권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쿠쉬만(Kushman) 베두인족들처럼 15일째와 40일째 동물을 희생하고, 추모를 하는 경우도 있다(Hobbs, 1990: 65-66).

5. 전통문화와 서구문화의 조화와 갈등

오늘날 서구문화와 긴밀한 접촉과 자유로운 사상의 물결이 전통적 이슬람 관습의 틀을 어느 정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성의 지위가 급속히 신장되고 사회적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슬람법이 효과적인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에

적합한 이슬람법의 적용과 개혁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사회의 이슬람적 관습은 쉽게 변질될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이슬람식이 아닌 변화를 타락으로 보는 그들의 문화적·윤리적 우월감이 아직 강렬하게 인식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그들이 서구와 접촉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착취와 부도덕뿐이었다는 과거 역사에 대한 뼈저린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운동이 갈수록 영향력을 더해 가는 추세가 이를 잘 반증해 준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은 이슬람 일체주의와 아랍민족주의를 강조하여 서구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계속하는 한편, 전통적인 이슬람 규범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조화와 절충의 묘를 함께 찾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구식 제도나 체제를 모방함으로써가 아닌 철저히 이슬람적인 자기 틀에 바탕을 둔 내적인 혁신과 적절한 재해석의 방법을 통해 사회의 발전과 현대화를 추구해 나가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위

1994, 《이슬람 입문》, 한국의국어대학교 출판부.

이희수

1990, “이슬람의 죽음-고차원적인 삶의 양태”, 《죽음이란 무엇인가?》, 도서출판窓.

이희수·최준식(공역)

1993, 《이슬람-그 역사적 고찰(Hamilton Gibb)》, 문덕사.

Ali, Yusuf

1989, *The Holy Qur'an*, Riyadh.

Al-Kaysi, Marwan Ibrahim

1986, *Morals and Manners in Islam*, London.

Armajani, Yahya

1970, *Middle East, Past and Present*, New Jersey: Prentice-Hall Inc., Englewood Cliffs.

Ati, Abd Al Hammuda

1977, *The Family Structure in Islam*, Brenwood: American Trust Publication.

Barakat, Halim

1993, *The Arab World: Society, Culture, and Stat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Cole, Donald P.

1977, “Household, Marriage and the Family Life among Al-Murrah of Saudi Arabia”, *Arab Society in Transition*,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Farah, Caesar E.

1987, *Islam*, New York.

Ginat, Joseph

1983, *Women in Muslim Rural Society*, New Jersey: Transaction Books.

Hathout, Hassan

1994, "Female circumcision is not required by Islam", *The Muslim Reader*, Vol. 12, No. 4.

Helms, L. Masoumah

1995, "The HARIM as sacred space for Muslim Women", *Muslim Education Quarterly*, Vol. 12, No. 3, Cambridge: The Islamic Academy.

Hobbs, Joseph J.

1989, *Beduin Life in the Egyptian Wilderness*, Cairo.

Ibrahim, S. E. and Hopkins, N. (ed.)

1977, *Arab Society in Transition*,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Islamic World League

n. d. *Funeral Regulation in Islam*, Mecca: Dar Al-Kitab Al-Masri.

Lane, E. W.

1971, *Arabian Society in Middle Ages*, New York: Barnes and Noble Inc.

Lewis, R.

1971, *Everyday Life in Ottoman Turkey*, New York: Dorset Press.

Lughod, Lila Abu

1986, *Veiled Sentiments*, Cairo: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Press.

Mansfield, P.

1990, *The Arabs*, London.

Patai, Raphael

1976, *The Arab Min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rothro, E. T.

1967, *Child Rearing in the Lebanon*, Cambridge: Center for Middle Eastern Studies.

Saleh, Saneya

1977, "Woman in Islam: their Status in Religious and Traditional Culture", *Arab Society in Transition*, Cairo: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Walther, Wiebke

1981, *Woman in Islam*, London.

Wells, Suzi and Batini, Bazza

1987, *Tradition: The Folklore of Women and Children in Kuwait*, Kuwait: Kuwait Bookshops Co.

World Assembly of Muslim Youth (WAMY)

1995, *Woman and Family Life in Islam*, Riyadh: Abrar Press.